

# 국가 정책정보 수집력 확대를 위한 기증수요 분석\*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을 중심으로 -

## Analysis of Donation Demand for Expansion of National Policy Information Collection: Focused on National Association for Policy Information

윤 희 윤 (Hee-Yoon Yoon)\*\*

오 선 경 (Seon-Kyung Oh)\*\*\*

김 신 영 (Sin-Young Kim)\*\*\*\*

### 목 차

- |                 |                     |
|-----------------|---------------------|
| 1. 서론           | 3. 정책정보 기증수요 분석과 과제 |
| 2. 정책정보 수집기관 분석 | 4. 요약 및 결론          |

### 초 록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 행정·정책의 요람인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 정책수집·집행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식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정책정보 중심의 특화도서관이다. 따라서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려면 납본, 구입, 수증, 디지털 아카이빙 등 다양한 수집방식을 적용하여 국내외 고품질 정책정보를 수집하고 부존 자원화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수집방안 중에서 수증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정보의 주요 생산자이자 수요자인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 운영 및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도와 정책자료 대량기증 수요를 조사·분석하고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is a subject branch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hich is centered on policy information for governments and related research institutes. Therefore the strategic orientation of the NLKS to establish the essential identity and to enhance its capacity is to collect and preserve policy information both domestic and abroad.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NLKS as a national conservation center of policy information, we surveyed and analyzed the perception of the operation and policy information service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Policy Information and intention of policy information bulk donations of the member institutions, which are the producers and consumers of policy information. And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ed ways to strengthen the policy collection ability of NLKS.

키워드: 정책정보,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장서개발, 대량기증  
Policy Information, National Library of Korea(Sejong), National Library,  
National Association for Policy Information, Collection Development, Bulk Donations

\* 본 논문은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2017)에서 발췌하여 수정·재구성한 것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제1저자)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sk2898@hanmail.net) (공동저자)

\*\*\*\* 경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inyoung@kiu.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8년 10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8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11월 2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4): 5-26, 2018.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4.005]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일반적으로 정책은 공공부분(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준정부기구 등)이 국가와 사회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모든 계획과 시책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려면 다양한 정책정보 및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이 중요하다. 정책정보가 부족하면 정책내용이 부실하게 되고, 바람직한 정책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 낭비와 국민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책정보는 공공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반드시 투입되어야 할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외 주요 정책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한편 미래를 위해 보존하는 주체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설립된 국가기관이 국립세종도서관이다. 실정법령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105호)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2013년에 설립된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 행정·정책의 요람인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이 정책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각종 지식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정책정보 중심의 특화도서관이다. 따라서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외 고품질 정책정보를 수집·부존화하는 과정을 전제로 정책정보서비스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세종도서관은 자료예산 및 인력구성의 취약, 정책정보를 둘러싼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역할분담, 디지털 아카이빙(OASIS) 한계 등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대다수 정책정보 및 관련 자료는 공간자료(과거 정책수립자료, 정책백서, 정책평가자료, 정책평가보고서 등 공식적으로 간행된 자료) 외에 법령·통계, 회색문헌(연구보고서, 세미나자료, 자문회의자료, 공청회자료, 학위논문 등)과 디지털자료(언론기사, 인터넷 정보 등)가 많기 때문에 납본방식이나 디지털 아카이빙으로 수집·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세종도서관)은 2015년 11월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 제6호(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운용)에 의거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소장한 지식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온·오프라인 협력체인 국가정책정보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for Policy Information)를 구성하였다. 현재 191개 정부부처,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등의 자료실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세종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정책정보를 수집·보존해 온 회원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정책정보 수집력 확대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법적 납본 및 자발적 기증에 의존하는 전략으로는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정보 생산자인 동시에 수요자인 NAPI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정책자료 대량기증 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선행연구 개관

국내외에서 국립도서관의 정책정보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수요자 인식을 조사·분석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정책정보 수집기관을 대상으로 기증수요를 조사한 연구는 없다. 이에 2010년 이후에 국가 장서개발 및 정책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요자와 이용자를 조사·분석한 연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외 사례로 Georgiou와 Makri(2015, 472-489)는 영국 지방정부의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을 적용하여 정보추구행태를 조사·분석하여 3개 키워드(정보관리, 글쓰기와 편집, 리뷰)를 추출하고 정보이용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정보환경에 대한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권고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의 경우, 광승진 등(2011, 311-330)은 세종시 정부기관 공무원(121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장서개발 계획과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노영희와 심재운(2014, 137-168)은 정부부처 산하 국책연구소 연구자 125명(설문 115명, 면접 10명)을 대상으로 정책정보 수요 및 요구를 조사하였다. 광승진, 노영희, 강동석(2015, 75-109)은 이용자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례분석과 설문조사(공무원 59명, 연구원 37명, 사서 30명)를 병행하여 정보검색 및 자료제공서비스, 참고정보서비스, 정책정보 네트워크 서비스, 도서관 마케팅서비스, 개인화서비스 등의 제공을 제안하였다. 노영희 등(2015, 83-113)은 정책정보멘터링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공무원 59명, 연구원 37명, 사서 30명) 하였는데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고 참여의사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민석(2015)은 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품질 요소

에 대한 이용자(행정부 공무원, 172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기반으로 정책정보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전략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윤희윤, 오선경, 성정희(2016, 19-42)는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중심의 특화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하여 이해집단(정부부처 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376명, 세종시민 384명, 국립세종도서관 직원 66명)을 대상으로 기본적 정체성과 역할, 각종 서비스의 이용률 및 만족도, 정책정보 및 정책정보서비스의 필요성과 이용, 전략적 및 중점적 추진과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이해집단의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정보서비스 의존도 제고를 위한 인력확충과 조직확대,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전략, 국가정책정보서비스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대다수 선행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정책정보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책정보 이해집단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한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전략과 정책정보서비스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기관회원을 대상으로 대량기증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수행된 적이 없었다.

## 2. 정책정보 수집기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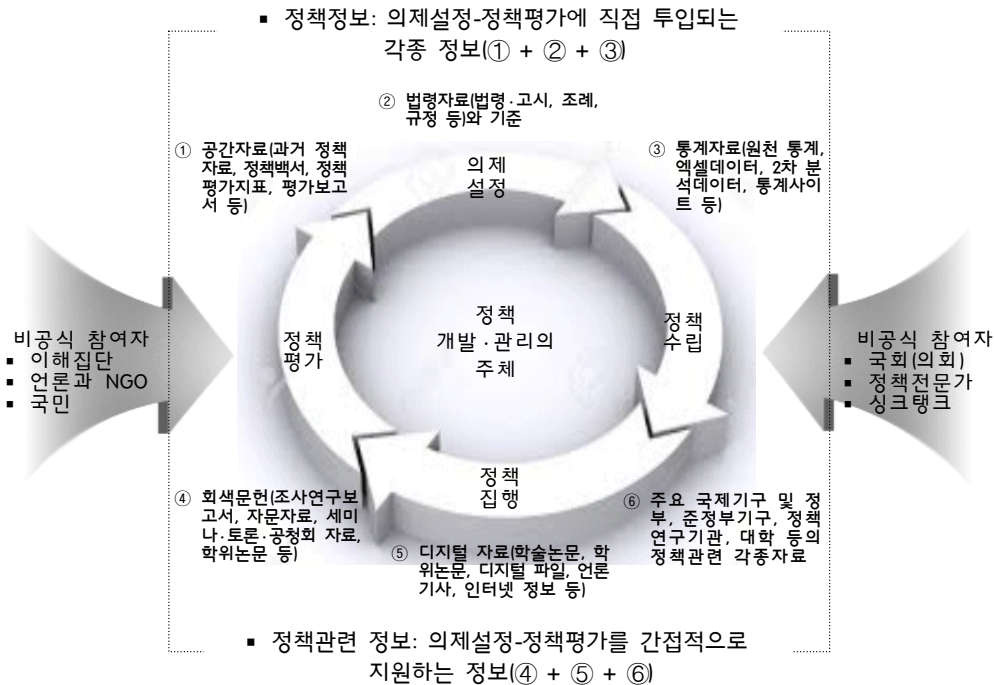
### 2.1 정책정보의 정의와 범주

NAPI 회칙 제1장 제3조(정의)의 1은 정책정보를 정부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을 위한 연구 및 업무와 관련된 지식정보자원으로 규정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책정보는 정책결정자가 의사결정 및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로 구성된 자료이며, 정책의 목표설정, 기획, 입안, 집행, 운영관리 및 정책의 성과평가 등 정책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유·무형의 자료 전반을 포함한다. 즉, 정책 담당자가 정책의 기획 및 입안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자료, 주요 정책의 현황, 과제, 논점, 장래예측, 정책방침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판단 자료를 말한다(국립중앙도서관 2011, 5). 그리고 장서관리에 있어서 정책정보란 정책결정자가 조사연구, 정책입안, 정책결정, 운영관리, 정책평가 등 정책 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국민, 연구자 등이 국내외 정책에 대해서 알고자 할 경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의미

하는 것으로 주로 국내외 정부, 공공기관 및 정당 등이 정책과정에서 생산한 산출물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15, 85). 따라서 정책정보는 정책메뉴로 확정·수립한 후에 집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각각에 유용한 정책정보 및 관련 자료를 총칭한다.

이러한 정책정보와 관련자료는 일반적인 정책의 스펙트럼인 <그림 1> 처럼 국가 및 사회 문제를 의제화하여 정책메뉴(주제별 또는 이슈별 정책과제로서 경제정책, 문화정책, 대중교통정책, 입시정책 등을 지칭함)로 확정·수립한 후에 집행·평가하는 과정에 단계별로 투입되어야 한다. 상술하면, 정책정보는 의제 설정에서 정책평가에 직접 투입되는 공간자료와 법령·통계자료이고, 정책관련 자료로는 의제설



<그림 1> 정책과정에 투입되는 정책정보와 관련자료

〈표 1〉 정책정보 및 관련 자료의 범주

구 분	주요 내용
정책정보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사회적 문제를 의제화하여 정책메뉴로 확정·수립한 후에 집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각각에 유용한 정책정보 및 관련 자료</li> </ul>
정책정보 및 관련 자료의 범주	<p>정책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적으로 간행된 자료: 과거 정책수립자료, 정책백서, 정책평가지표, 정책평가보고서, 예비타당성 분석자료, 환경영향평가서, 법령자료, 통계데이터, 예결산자료, 단행본, 학술논문(국내의 정책관련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학협회, 대학연구소의 정책관련 학술지와 기관지에 게재된 정책연구 및 정책평가 논문), 인터넷 정보 등</li> </ul>
	<p>관련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각종 회색문헌: 조사연구보고서, 자문회의 자료, 세미나 자료, 학술대회자료, 토론·공청회 자료, 민원요청 자료, 학위논문, 주요 대학 및 출판사 자료, 디지털 자료(학술논문, 보고서, 언론기사, 인터넷 정보 등)</li> <li>• 정책사이클별 관련자료의 범주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의제화: 국정기조 및 국가계획, 부처별 중장기 계획과 로드맵, 지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발전계획, 법령과 기준, 조사연구보고서, 주요 단행본, 이슈자료, 토론·세미나자료, 언론기사, 민원요청 자료 등</li> <li>- 정책수립 및 집행: 과거 정책자료, 예결산자료, 관계법령과 기준, 통계데이터, 예비타당성 분석자료, 환경영향 평가자료, 자문회의 자료, 조사연구보고서, 단행본, 학술논문, 학위논문, 인터넷 정보 등</li> <li>- 정책평가 및 피드백: 정책백서, 평가지표, 평가보고서 등</li> </ul> </li> </ul>

정에서 정책평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회색 문헌과 디지털자료, 주요 국제기구 및 정부, 준 정부기관, 대학 등의 정책관련 각종 자료를 들 수 있다(국립세종도서관 2017, 119-120). 정책 정보 및 관련 자료의 범주를 구체화하면 〈표 1〉과 같다.

## 2.2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수집·보존 현황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 행정·정책의 요람인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 정책기능 수행과 관련된 각종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정보 중심의 특화도서관이다.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장서 총 500,583권 가운데 〈표 2〉 및 〈그림 2〉와 같이 정책도서가 51.5%(257,298권)로 가장 많고 일반·아동도서 44.8%(224,479권), 비도서 3.7%(18,806점) 순이다. 전체 장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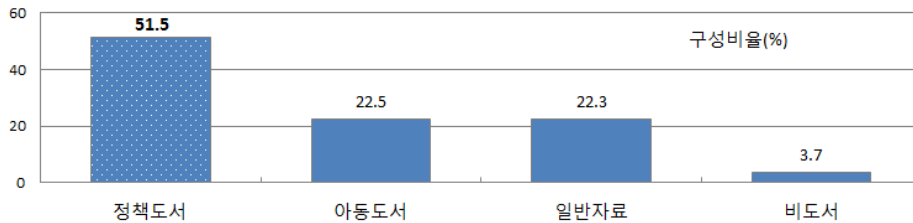
정책자료가 절반에 불과하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과 및 디지털기획과와 업무분장 조정 또는 분담전략을 통하여 세종시 소재 정부청사 차원을 넘어 전국의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되는 정책자료 수집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정책정보는 물론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가 발간한 정책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등과 협력하여 국내외 정책정보의 협력수집 방안, 분산형 수장과 체계적 보존시스템, 통합서비스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외 최신 정책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림 3〉과 같이 정책정보포털(POINT: POLicy Inform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관련 기관의 최신 정책자료 원문 및 NAPI 회원기관이 제공

〈표 2〉 국립세종도서관의 자료유형별 장서 증가 현황(2013-2018)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권(건)	%	권(건)	%	권(건)	%	권(건)	%	권(건)	%	권(건)	%	
도서	일반·아동	43,733	48.0	86,796	41.0	131,004	44.8	172,041	45.8	204,987	45.5	224,479	44.8
	정책	38,380	42.1	111,614	52.7	146,421	50.1	186,597	49.7	227,952	50.5	257,298	51.5
비도서	8,972	9.9	13,373	6.3	14,904	5.1	16,691	4.5	17,861	4.0	18,806	3.7	
계	91,085	100.0	211,783	100.0	292,329	100.0	375,329	100.0	450,800	100.0	500,583	100.0	

\* 2018년 통계는 6월 30일 기준임



〈그림 2〉 국립세종도서관의 자료유형별 장서 현황(2018.6)



〈그림 3〉 정책정보포털(POINT) 초기 화면

한 정책자료 서지정보, 학술자료 등을 조사·수집하고 있는데, 국외 자료는 표제 및 요약문을 한글로 번역·제공한다. 조사내용은 최근 3년간 발행된 정책관련 전문자료 가운데 최신자료를 우선하고, 조사대상은 국내의 정부·위원회·정부출연연구기관, 국외(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싱가포르, 독일 등)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료(보고서, 기획안 등), 통계자료, 법령자료, 용어·약어사전, 국회관련자료, 재정자료, 연구보고서, 연구동향 및 분석자료, 출장보고서, 법령자료, 홍보자료, 세미나자료, 감사자료, 회의자료, 정책기관, 기관 웹진 등이다. 2018년 7월말 기준 제공되는 콘텐츠는 온라인 정책보고서 299,559건, 학술자료 244,977종(405,489,391건), 웹사이트 959건, 협력기관 소장자료 607,189건 등이 있다.<sup>1)</sup> 분류체계는 정부기능분류(BRM: Business Reference Model)<sup>2)</sup>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세종도서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책정보의 적극적 개발과 부존 자원화를 통한 대한민국 정책정보센터로서의 역할 강화와 그것을 통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에 진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3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정책정보 분석

NAPI는 정책정보 발굴, 정책정보 DB구축,

정책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 지식정보자원 공유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정보조직 및 공공분야 도서관의 발전과 관련된 정책 조사·연구, 회원 정보관리 능력 증진 교육, 자질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운영, 우수한 협력 회원에 대한 포상,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7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가입승인을 받은 191개 회원기관 중에서 기관별 성격상 정책정보의 성격이 매우 상이하지만 정책정보 수집에 치중하는 6개관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설립목적, 발간자료, 수집방법, 장서현황 등을 분석·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3. 정책정보 기증수요 분석과 과제

### 3.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먼저 정책정보의 기증수요 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은 설문조사 당시 NAPI 회원기관 144개관으로 한정하였다. 조사기간은 약 3주간(2017. 7.20-8.10)이다. 다음으로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한 설문지는 <표 4>와 같이 총 15문항(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 및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정책정보 대량기증 수요)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설문지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온라인 설

1) POINT 웹사이트, 콘텐츠 통계. [online] [cited 2018. 8. 20.]

<<http://policy.nl.go.kr/html/p5/p501.jsp?menuId=N141&upperMenuId=N100>>

2) BRM은 정책정보를 정부 업무 기능별로 분류한 분류체계로, 정책동향의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에는 17개 분야, 68개 영역별 정책관련 자료 및 참고정보원을 모아 자료유형별로 해당 콘텐츠를 제공함

〈표 3〉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의 정책정보 사례분석

구분	특허청	기획재정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립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최소(필수) 문헌, 과학기술도서 및 지식재산권 자료를 특허 조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전문도서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 정책, 예산, 국고, 세제, 국제금융, 경제협력 등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경제 및 인접분야의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설립</li> <li>기존 도서관업무와 기록물관리업무, 공공지자물 관리업무도 함께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 전반에 대한 연구 분석,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지원</li> <li>아세안 국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 국가들과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분야 전문정보센터로서 실질적인 국가 해양과학도서관 역할을 수행</li> <li>해양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정보를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li> <li>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li> </ul>
발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재산 21</li> <li>정책용역연구보고서</li> <li>지식재산심사기준·매뉴얼</li> <li>지식재산 백서</li> <li>Display Patent Webzine</li> <li>특허청 발간 전자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경제동향</li> <li>(월간) 재정동향</li> <li>나라살림</li> <li>이렇게 달라집니다</li> <li>간추린개정세법</li> <li>국가재정운용계획</li> <li>경제백서</li> <li>국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리뷰</li> <li>노동정책연구</li> <li>국제노동브리프</li> <li>(매월) 고용동향분석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정책연구</li> <li>주간국방논단</li> <li>ROK Angle</li> <li>국방비용분석</li> <li>경제지표</li> <li>국방예산분석·평가 및 중기정책 방향</li> <li>영문저널(KJDA)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cean Science Journal</li> <li>Ocean and Polar Research</li> <li>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li> <li>해양과학총서</li> <li>과학으로 보는 바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간기술동향</li> <li>Weekly ICT Brief</li> <li>ICT R&amp;D 정책동향</li> <li>SW산업 월간동향</li> <li>SW Insight 리포트</li> <li>월간 ICT 산업동향</li> <li>ICT SPOT Issue</li> <li>ICT Insight</li> <li>모바일 트렌드 매거진</li> </ul>
수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 지식재산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특허정보 공유체계 강화</li> <li>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재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원 연구결과물, 노동관련 단체·기관 발행 정보자료</li> <li>경영·경제·노동 관련 단행본, 연구보고서, 통계·연감</li> <li>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 발간자료</li> <li>토론, 세미나, 심포지엄, 학술대회 자료</li> <li>국내외 유관기관·단체 브로슈어</li> <li>노동관련 국제기구 등의 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기 국방정책, 안보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 획득정책, 정보화, 국방경영혁신 등 국방 전반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해 우선 수집·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해양수산정보를 우선 수집하여 국내 핵심저널에 수록된 논문의 서지정보를 색인·분석·입력·제공하여 국내 해양학자의 연구정보가 국제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산업의 각종 최신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수집·제공·동향 정보, 정책·통계자료, NIPA 간행물, 법령 및 규정서식</li> </ul>
장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행본 38,374권</li> <li>정기간행물 548종 (98,383권)</li> <li>CD 971장</li> <li>Web DB 24개</li> <li>국의 특허문헌 (2018.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간행물 및 연구보고서, 일반도서, 통계자료 등 2만여권의 장서</li> <li>정기 간행물(국내, 국외), OECD발간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행본 20,500권</li> <li>연구보고서 25,500권</li> <li>통계·연감 8,550권</li> <li>정기간행물 250종 4,920권</li> <li>기사책인 26,100권</li> <li>비도서 460권</li> <li>학술DB 26종</li> <li>E-Book 27종 등 (2018.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행본 147,677권</li> <li>정기간행물 299종 (2016.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행본 57,396권</li> <li>정기간행물 12,227권</li> <li>기타 인쇄자료 1,133권</li> <li>비도서 2,420점 (2016.12.)</li> <li>Science Direct, Springer 등의 전자저널 11,400종</li> <li>국의전자책 2,366권</li> <li>국내전자책 1,778종</li> <li>오디오북 32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행본 8,080권</li> <li>정기간행물 40종</li> <li>비도서 1,461점 (2016.12.)</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갖추어야 할 PCT 최소문헌 확보 및 고품질 심사를 위한 선행기술 조사자료 확보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학술정보 원문서비스 제공: EBSCO (Business Source Corporate)에서 제공하는 국가보고서, 산업보고서, 시장보고서, 해외저절 및 매거진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관련 주요 정책 정보서비스</li> <li>KLI 간행물 이용·인용 확산 및 홍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AO/ASFA의 Korean National Partner로 지정되어 한국해양수산정보자료입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음</li> </ul>	-

〈표 4〉 설문지 구성과 문항수

번호	항목	조사내용	문항수	계
I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 및 정책정보 서비스 인식	- 협의회 운영 만족도 - 협의회 회원기관간 상호협력 필요성 - 국립세종도서관과 협력 필요성 -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이용자의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 이용자의 정책정보 유형별 이용도 - 이용자의 정책정보 유형별 중요도 - 정책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립세종도서관의 우선 해결과제	8	15
		II		

〈표 5〉 설문조사 응답기관의 인구통계적 특징

구분		비율(빈도)	구분	비율(빈도)	
성격*	정부 부처	33.3(27)	장서규모 (인쇄도서 기준)	1만권 미만	24.7(20)
	연구기관	40.7(33)		1-3만권 미만	33.3(27)
	기타	25.9(21)		3-5만권 미만	17.3(14)
주제*	과학·기술	38.3(31)		5-7만권 미만	9.9(8)
	인문·사회	34.6(28)		7만권 이상	6.2(5)
	예술·문화·체육	13.6(11)		무응답	8.6(7)
	기타	13.6(11)	* 세목별 비율의 합이 100%가 아닌 경우는 정상하였기 때문임		

문방법(KSDC DB)<sup>3)</sup>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대상 144개관 중에서 응답한 81개관(56.3%)의 인구통계적 특징은 〈표 5〉와 같다. 이들의 성격적 분포는 연구기관(40.7%), 주제별은 과학·기술(38.3%), 장서규모는 1-3만권 미만(33.3%)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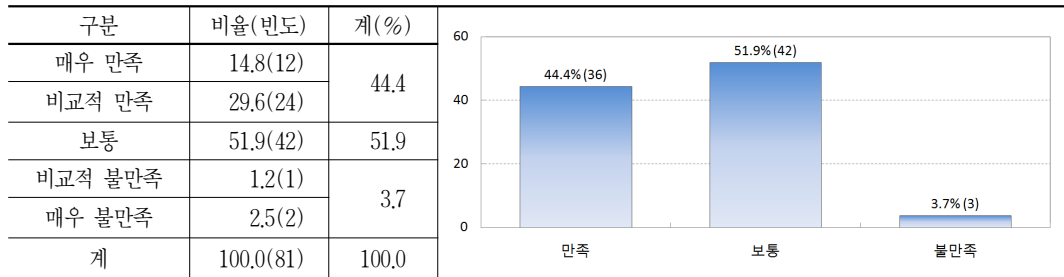
### 3.2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과 협력

#### 3.2.1 협의회 운영에 대한 만족도

NAPI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표 6〉과 같이 보통이 51.9%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만족과 불만족으로 구분하면 만족이 44.4%(매우 만족 14.8% + 비교적 만족 29.6%)로 불만족 3.7%(비교적 불만족 1.2% + 매우 불만족 2.5%) 보

3) KSDC, "KSDC DB: Statistical and Analysis" [online] [cited 2017. 7. 10.] <<http://ksdcdb.kr/main.do>>

〈표 6〉 NAPI 운영 만족도



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하반기에 출범하여 협의회 운영이 정착되지 않았음에도 기대감이 반영되어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의 절반에 미달하므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3.2.2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NAPI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은 〈표 7〉과 같이 1순위는 회귀 정책자료의 발굴과 디지털화 및 공동활용(22.3%), 2순위는 회원기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디지털 서고 구축(13.6%), 3순위는 정책정보서비스 선진사례 연수(13.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순위 기입형 질문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개선사항의 순위는 회귀 정책자료의 발굴과 디지털화 및 공동활용, 회원기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디지털 서고 구축, 국외 학술 전자책 서비스, 회원기관 소장자료 서지정보 및 원문자료 정책정보 종합 목록, 회원기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정책정보도우미서비스, 정책정보 상호대차서비스의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정보 수요자의 시간적 제약, 접근·이용의 편의성 추구, 보편적 사조인 인터넷 정보

유통 및 디지털 접근패러다임 등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NAPI는 회귀 정책자료 발굴, 디지털 전자책의 우선 수집, 디지털 마이그레이션에 방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립세종도서관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 3.2.3 회원기관 상호간 및 국립세종도서관과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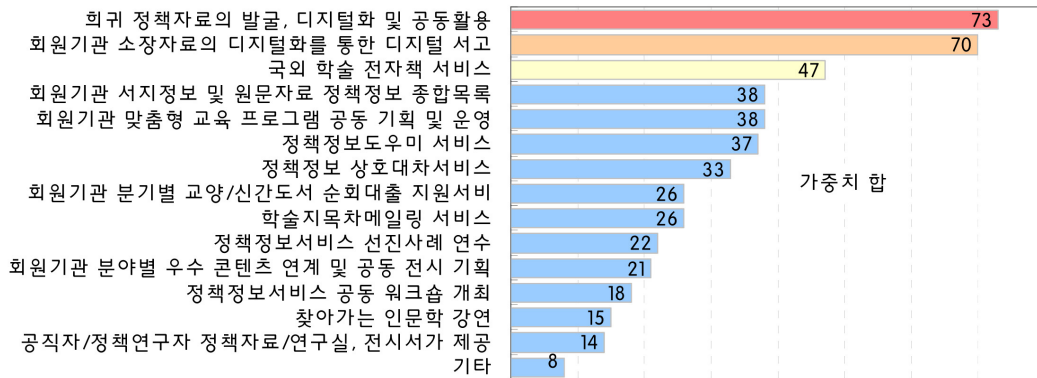
먼저 NAPI 회원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은 〈표 8〉과 같이 필요함이 51.9%(매우 필요함 13.6% + 비교적 필요함 38.3%)로 불필요함 6.1%(거의 불필요함 4.9% + 전혀 불필요함 1.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회원기관간 상호협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회원기관이 주로 전문도서관인 경우가 많고 수집·제공하는 자료의 범주나 유형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상호협력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관별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인 국립세종도서관과의 협력 필요성은 〈표 9〉에 정리한 바와 같이 보통이 33.3%인 반면에 높음이 53.1%(매우 높음 14.8% + 비교적 높음 38.3%)로 낮음 13.6%(비교적 낮음 12.4% + 매우 낮음 1.2%)

〈표 7〉 NAPI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합*
	%(관)	%(관)	%(관)	
회귀 정책자료의 발굴, 디지털화 및 공동활용	22.3(18)	8.6(7)	6.2(5)	73
회원기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디지털 서고 구축	17.3(14)	13.6(11)	7.4(6)	70
국외 학술 전자책 서비스	11.1(9)	8.6(7)	7.4(6)	47
회원기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8.6(7)	6.2(5)	8.6(7)	38
정책정보도우미 서비스	6.2(5)	8.6(7)	9.9(8)	37
학술지목차메일링 서비스	4.9(4)	7.4(6)	2.5(2)	26
회원기관 대상 분기별 교양 및 신간도서 순회대출 지원 서비스	4.9(4)	7.4(6)	2.5(2)	26
회원기관 소장자료 서지정보 및 원문자료 정책정보 종합목록	4.9(4)	9.9(8)	12.3(10)	38
정책정보 상호대차서비스	4.9(4)	9.9(8)	6.2(5)	33
회원기관 분야별 우수 콘텐츠 연계 및 공동 전시 기획	3.7(3)	6.2(5)	2.5(2)	21
정책정보서비스 선진사례 연수	3.7(3)	1.2(1)	13.6(11)	22
공직자·정책연구자를 위한 정책자료·연구실, 전시서가 제공	2.5(2)	2.5(2)	4.9(4)	14
찾아가는 인문학 강연	2.5(2)	1.2(1)	8.6(7)	15
정책정보서비스 공동 워크숍 개최	1.2(1)	6.2(5)	6.2(5)	18
기타	1.2(1)	2.5(2)	1.2(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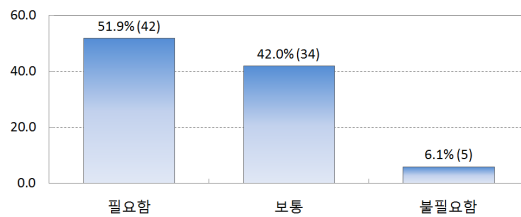
\* 가중치는 1순위에 3, 2순위에 2, 3순위에 1을 부여하고 각각의 응답 빈도를 곱하여 합산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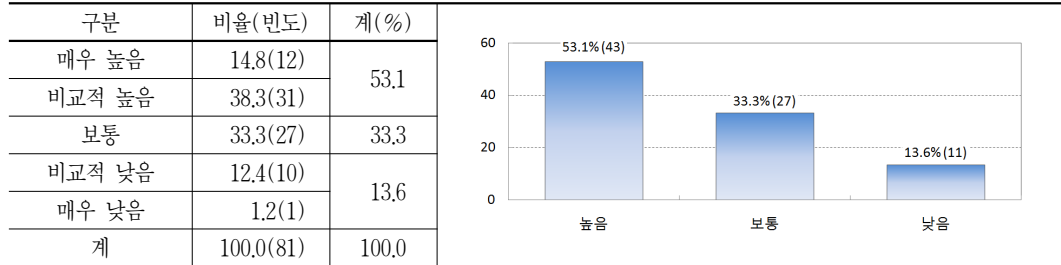
〈그림 4〉 NAPI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순위(가중치 적용)

〈표 8〉 NAPI 회원기관간 상호협력 필요성

구분	비율(빈도)	계(%)
매우 필요함	13.6(11)	51.9
비교적 필요함	38.3(31)	
보통	42.0(34)	42.0
거의 불필요함	4.9(4)	6.1
전혀 불필요함	1.2(1)	
계	100.0(81)	100.0



〈표 9〉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립세종도서관과의 협력 필요성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각각의 회원기관이 자체 수집·보존하거나 회원기관 협력을 통하여 구성원에게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기 때문에 협력할 경우에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3.3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정책정보 요구 및 이용

#### 3.3.1 정책정보서비스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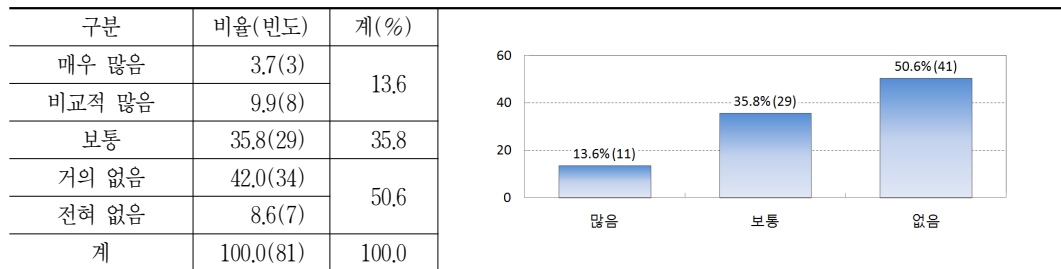
정책정보서비스는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결정권자, 정책연구자 등이 필요한 정책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입수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NAPI 회원기관 이용자의 정책정보서비스 요구도는 〈표 10〉과 같이

없음이 50.6%(거의 없음 42.0% + 전혀 없음 8.6%)로 많음 13.6%(매우 많음 3.7% + 비교적 많음 9.9%)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회원기관 이용자의 요구도가 낮은 이유는 정책의 의제화, 수립과 집행, 평가 등 정책행위가 많지 않거나 필요한 정책정보 및 관련 자료의 이용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이용가능성에 대한 기관별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3.3.2 정책정보의 유형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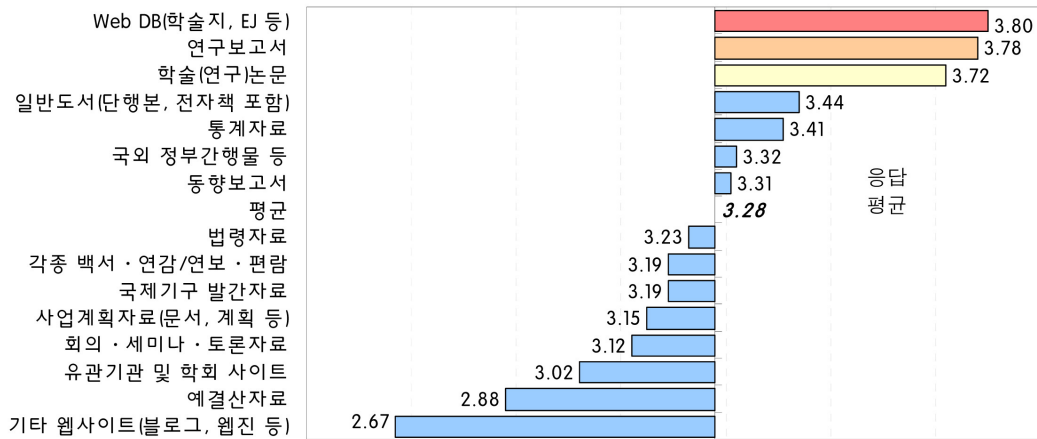
정책정보의 유형별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표 11〉 및 〈그림 5〉와 같이 평균 3.28로 중위수(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Web DB(학술지, EJ 등)가 3.80으로 가장 높았고 연구보고서, 학술(연구)논문, 일반도서(단행본, 전

〈표 10〉 NAPI 회원기관 이용자의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표 11〉 NAPI 회원기관 이용자의 정책정보 유형별 중요도

구분	평균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보통	비교적 낮음	매우 낮음
		%(관)	%(관)	%(관)	%(관)	%(관)
Web DB(학술지, EJ 등)	3.80	33.3(27)	33.3(27)	19.8(16)	7.4(6)	6.2(5)
연구보고서	3.78	28.4(23)	35.8(29)	27.2(22)	2.5(2)	6.2(5)
학술(연구)논문	3.72	28.4(23)	33.3(27)	25.9(21)	6.2(5)	6.2(5)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3.44	13.6(11)	40.7(33)	28.4(23)	11.1(9)	6.2(5)
통계자료	3.41	19.8(16)	30.9(25)	27.2(22)	14.8(12)	7.4(6)
국외 정부간행물 등	3.32	14.8(12)	29.6(24)	35.8(29)	12.4(10)	7.4(6)
동향보고서	3.31	14.8(12)	29.6(24)	34.6(28)	13.6(11)	7.4(6)
국제기구 발간자료	3.19	12.4(10)	28.8(23)	32.1(26)	19.8(16)	7.4(6)
법령자료	3.23	11.1(9)	30.9(25)	37.0(30)	12.4(10)	8.6(7)
각종 백서·연감·연보·편람	3.19	11.1(9)	27.2(22)	37.0(30)	18.5(15)	6.2(5)
사업계획자료(문서, 계획 등)	3.15	7.4(6)	32.1(26)	37.0(30)	14.8(12)	8.6(7)
회의·세미나·토론자료	3.12	6.2(5)	29.6(24)	42.0(34)	14.8(12)	7.4(6)
유관기관 및 학회 사이트	3.02	9.9(8)	25.9(21)	30.9(25)	23.5(19)	9.9(8)
예결산자료	2.88	4.9(4)	24.7(20)	34.6(28)	24.7(20)	11.1(9)
기타 웹사이트(블로그, 웹진 등)	2.67	2.5(2)	14.8(12)	42.0(34)	28.4(23)	12.4(10)
계(평균)	(3.28)	100.0(177)	362(100.0)	398(100.0)	182(100.0)	96(100.0)



〈그림 5〉 NAPI 회원기관의 정책정보 유형별 중요도 순위(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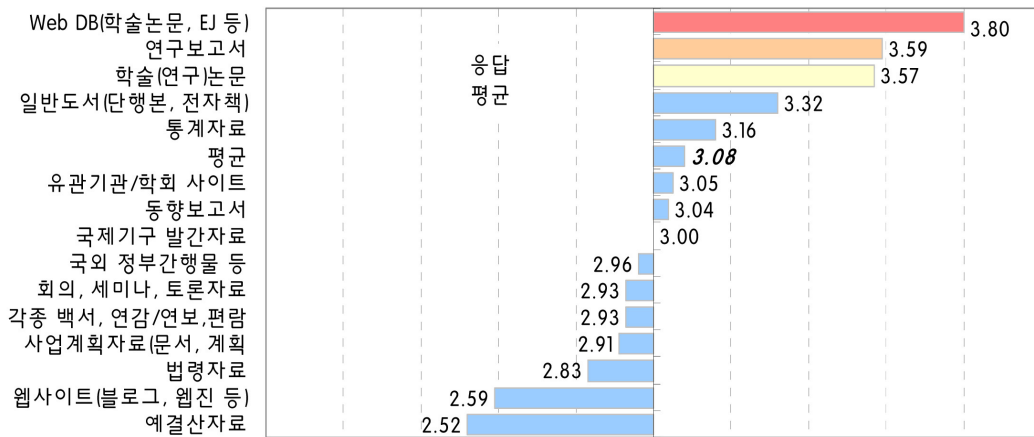
자책 포함), 통계자료, 국외 정부간행물, 동향 보고서, 국제기구 발간자료, 법령자료, 각종 백서·연감·연보·편람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3.3.3 정책정보의 유형별 이용도

정책정보의 유형별 이용도를 조사한 결과, 〈표 12〉 및 〈그림 6〉과 같이 평균 3.08로 중위수(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Web DB

〈표 12〉 NAPI 회원기관 이용자의 정책정보 유형별 이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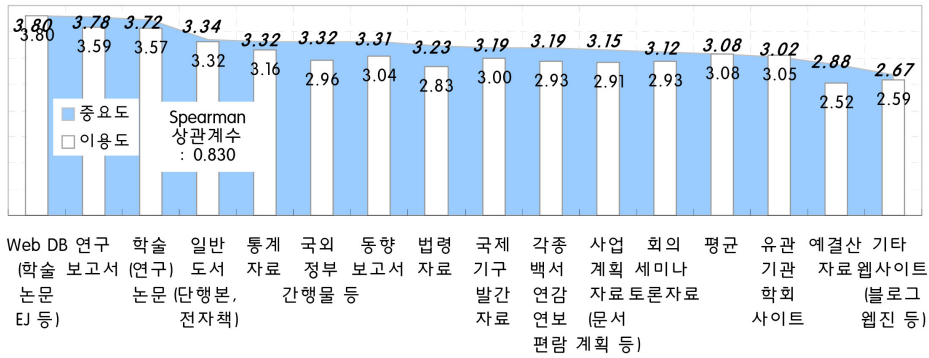
구분	평균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보통	비교적 낮음	매우 낮음
		%(관)	%(관)	%(관)	%(관)	%(관)
Web DB(학술지, EJ 등)	3.80	33.3(27)	32.1(26)	21.0(17)	8.6(7)	4.9(4)
연구보고서	3.59	28.4(23)	27.2(22)	25.9(21)	12.4(10)	6.2(5)
학술(연구)논문	3.57	27.2(22)	30.9(25)	22.2(18)	11.1(9)	8.6(7)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3.32	12.4(10)	32.1(26)	37.0(30)	12.4(10)	6.2(5)
통계자료	3.16	14.8(12)	24.7(20)	30.9(25)	21.0(17)	8.6(7)
유관기관 및 학회 사이트	3.05	8.6(7)	22.2(18)	42.0(34)	19.8(16)	7.4(6)
동향보고서	3.04	11.1(9)	25.9(21)	32.1(26)	17.3(14)	13.6(11)
국제기구 발간자료	3.00	13.6(11)	22.2(18)	27.2(22)	24.7(20)	12.4(10)
국외 정부간행물 등	2.96	8.6(7)	22.2(18)	38.3(31)	18.5(15)	12.4(10)
각종 백서·연감·연보·편람	2.93	9.9(8)	13.6(11)	44.4(36)	23.5(19)	8.6(7)
회의·세미나·토론자료	2.93	3.7(3)	27.2(22)	37.0(30)	22.2(18)	9.9(8)
사업계획자료(문서, 계획 등)	2.91	6.2(5)	24.7(20)	35.8(29)	21.0(17)	12.4(10)
법령자료	2.83	7.4(6)	17.3(14)	40.7(33)	19.8(16)	14.8(12)
기타 웹사이트(블로그, 웹진 등)	2.59	1.2(1)	12.4(10)	43.2(35)	30.9(25)	12.4(10)
예결산자료	2.52	3.7(3)	12.4(10)	35.8(29)	28.4(23)	19.8(16)
계(평균)	(3.08)	100.0(154)	100.0(281)	100.0(416)	100.0(236)	100.0(128)



〈그림 6〉 NAPI 회원기관의 정책정보 유형별 이용도 순위(평균)

(학술논문, EJ 등)가 3.80으로 가장 높았고 연구 보고서, 학술(연구)논문,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통계자료, 유관기관 및 학회 사이트, 동향보고서, 국제기구 발간자료, 국외 정부간행물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술한 중요도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즉 NAPI 회원기관의 정책정보 유형별 중요도와 이용도의 상관계수는 〈그림 7〉과 같이 0.830으로 상관성이 매우 높았다.



〈그림 7〉 NAPI 회원기관의 정책정보 유형별 중요도 및 이용도 비교

### 3.4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기증수요

#### 3.4.1 기증계획의 명분과 이유

NAPI 회원기관이 정책정보를 대량 기증하려는 명분과 현실적 이유는 <표 13>과 같이 1순위는 수장공간 부족(82.3%), 2순위는 디지털 자료 및 DB 구독 등 수집정책 변화(35.3%), 3순위는 자료수집정책 변화와 매체변환, 과월호 폐기, 불용도서 폐기 등 자관 보존 및 폐기정책 변화가 각각 29.4%로 가장 높았다. 이는 회원기관 특성상 정부 부처,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

기관 소속의 전문도서관이 많고 대부분이 서고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버전으로 변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소장자료의 기증이나 관리위탁의 필요성이 등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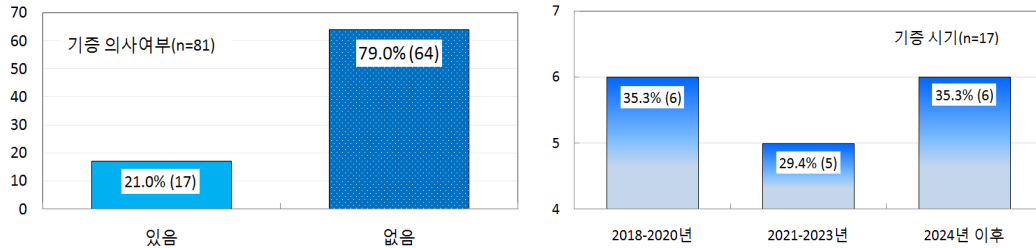
#### 3.4.2 기증의사와 기증시기

NAPI 회원기관이 소장한 정책정보의 국립세종도서관 기증의사를 조사한 결과, <그림 8>과 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0%(17개관)

〈표 13〉 NAPI 회원기관의 정책정보 대량 기증(관리위탁)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합*	비고 (가중치 적용의 순위)
	비율(빈도)	비율(빈도)	비율(빈도)		
수장공간 부족	82.3(14)	17.6(3)	0.0	48	
자료수집정책 변화(디지털 자료 및 DB 구독 등)	11.8(2)	35.3(6)	29.4(5)	23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보존·제공이 더 바람직함	5.9(1)	17.6(3)	23.5(4)	13	
이용률 저조	0.0	17.6(3)	11.8(2)	8	
자관 보존· 폐기정책 변화(매체변환, 과월호 폐기, 불용도서 폐기 등)	0.0	11.8(2)	29.4(5)	9	

\* 가중치는 1순위에 3, 2순위에 2, 3순위에 1을 부여하고 각각의 응답 빈도를 곱하여 합산한 결과임



〈그림 8〉 NAPI 회원기관의 정책정보 대량 기증의사 및 시기

에 불과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기증시기를 조사한 결과는 2018-2020년과 2024년 이후가 각각 35.3%(6개관)이며, 2021-2023년으로 생각하는 기관은 29.4%(5개관)로 나타났다.

### 3.4.3 기증의사가 있는 정책정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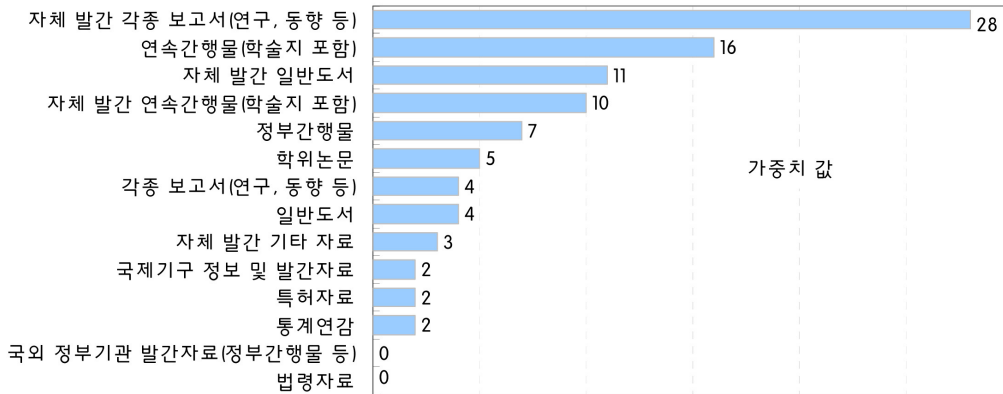
대량기증(관리위탁) 의사가 있는 경우의 정책정보 유형은 〈표 14〉와 같이 1순위는 자체 발간 각종 보고서(연구보고서, 동향보고서 등)

가 47.0%이고, 2순위는 연속간행물(학술지 포함)이 35.3%이며, 3순위는 자체 발간 각종 보고서, 자체 발간 일반도서, 정부간행물, 통계연감, 국제기구 정보 및 발간자료가 각각 1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기관별 특성에 따른 발간 자료 및 소장자료의 기증(관리위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위 기입형 질문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그림 9〉처럼 자체 발간 각종 보고서(연구보고서, 동향

〈표 14〉 NAPI 회원기관의 정책정보 유형별 대량 기증(또는 관리위탁)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합*
	%(관)	%(관)	%(관)	
자체 발간 각종 보고서(연구, 동향 등)	47.0(8)	5.9(1)	11.8(2)	28
자체 발간 일반도서	17.6(3)	0.0	11.8(2)	11
연속간행물(학술지 포함)	11.8(2)	35.3(6)	5.9(1)	16
자체 발간 연속간행물(학술지 포함)	5.9(1)	23.5(4)	5.9(1)	10
일반도서	5.9(1)	0.0	5.9(1)	4
각종 보고서(연구, 동향 등)	5.9(1)	0.0	5.9(1)	4
정부간행물	5.9(1)	5.9(1)	11.8(2)	7
자체 발간 기타 자료	0.0	5.9(1)	5.9(1)	3
학위논문	0.0	11.8(2)	5.9(1)	5
통계연감	0.0	0.0	11.8(2)	2
법령자료	0.0	0.0	0.0	0
특허자료	0.0	5.9(1)	0.0	2
국제기구 정보 및 발간자료	0.0	0.0	11.8(2)	2
국의 정부기관 발간자료(정부간행물 등)	0.0	0.0	0.0	0

\* 가중치는 1순위에 3, 2순위에 2, 3순위에 1을 부여하고 각각의 응답 빈도를 곱하여 합산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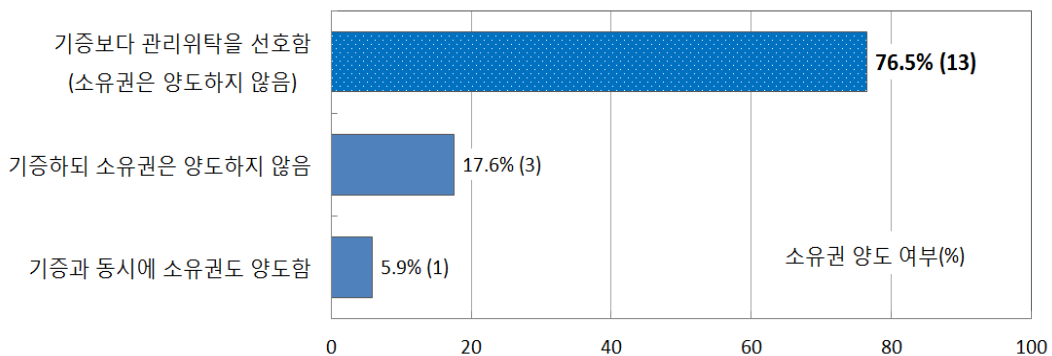
〈그림 9〉 NAPI 회원기관의 정책정보 유형별 대량 기증(관리위탁) 순위(가중치 적용)

보고서 등), 연속간행물(학술지 포함), 자체 발간 일반도서와 연속간행물(학술지 포함), 정부간행물, 학위논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각종 보고서나 연속간행물이 소급형 전자버전으로 발간되거나, 무료이용이 가능한 오픈 액세스 형태 내지 상업 DB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조성되고 정책정보 이용자 또한 전자버전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인쇄형 보고서나 학술지 등을 보존·관리하는데 따른 어려움이나 비용부담, 그리고 불필요성 때문에 기증(관리위탁)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 3.4.4 기증할 분량과 소유권 처리

NAPI 회원기관 중에서 정책정보를 국립세종도서관에 대량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문제는 〈그림 10〉과 같이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관리위탁을 희망하는 기관이 76.5%(13개관)로 가장 높았고, 기증하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기관이 17.6%(3개관), 기증과 동시에 소유권도 양도하겠다는 기관이 5.9%(1개관)로 나타났다.



〈그림 10〉 NAPI 회원기관의 정책정보 대량 기증시 소유권 양도 여부(n=17)

### 3.5 국가 정책정보 수집 강화를 위한 과제

NAPI 회원기관 입장에서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5>와 같이 나타났다. 1순위는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51.9%)이고, 2순위는 정책정보서비스 기능의 확대 및 신속화(29.6%)이며, 3순위는 NAPI 회원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28.4%)이다. 그러나 순위기입형 질문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그림 11>과 같이 1-3순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외국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가 4번째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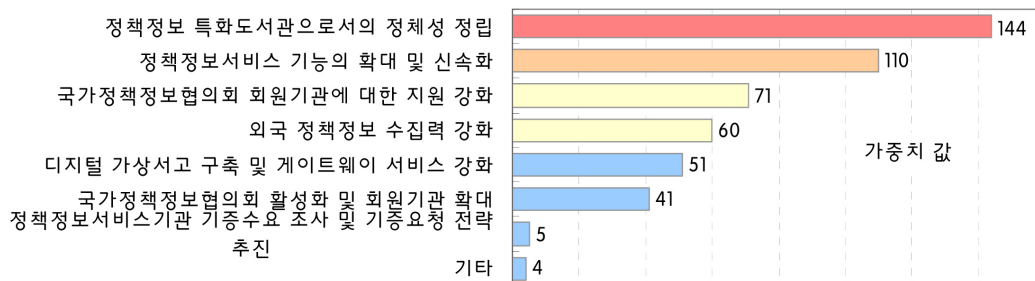
따라서 국립세종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민과 실천을 통하여 정책정보 수집력을 강화할 때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API 회원기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정책정보 중에서 공간자료는 남분을 통하여 수집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7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남분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국내 생산자료의 총량, 즉 모집단을 추적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NAPI 회원기관이 인식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주요 과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외국 정책정보 수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 수집대상 국가와

<표 15>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과제(N=81)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합*
	%(관)	%(관)	%(관)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정립	51.9(42)	7.4(6)	7.4(6)	144
정책정보서비스 기능의 확대 및 신속화	17.3(14)	29.6(24)	24.7(20)	110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12.4(10)	11.1(9)	28.4(23)	71
디지털 가상서고 구축 및 게이트웨이 서비스 강화	7.4(6)	14.8(12)	11.1(9)	51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활성화 및 회원기관 확대	6.1(5)	11.1(9)	9.9(8)	41
외국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	4.9(4)	23.5(19)	12.4(10)	60
정책정보서비스기관 기증수요 조사 및 기증요청 전략 추진	0.0	1.2(1)	3.7(3)	5
기타	0.0	2.3(1)	2.5(2)	4

\* 가중치는 1순위에 3, 2순위에 2, 3순위에 1을 부여하고 각각의 응답 빈도를 곱하여 합산한 결과임



<그림 11>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과제 순위(가중치 적용)

언어 등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국립세종도서관의 외국 정책정보 수집전략’ 등과 같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생산·유통되는 정책정보 중에서 특히 회색문헌(각종 보고서, 학술대회자료, 통계데이터, 정부간행물, 외국 박사논문, 국제표준과 기준 등)의 수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내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책정보 수요자 입장에서는 확인·접근하기가 어렵고 시간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사이트를 구축하여 포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되, 국가도서관인 동시에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인 점을 감안하면 디지털 장서개발 차원에서 수집·보존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현재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정책정보 접근·이용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립세종도서관이 납본, 구입, 디지털 장서개발 등을 통하여 정책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각각에 내재된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면 NAPI 회원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정보를 수증방식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설문에 응답한 81개 회원기관 중에서 17개관이 대량 기증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디지털 정보유통과 정책정보 수요자의 디지털 버전 선호도, 인쇄형 정책정보의 보존공간 및 유지비용 문제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 기증할 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관기관이 소장하는 정책정보의 대량수증 전략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국립세종도서관의 법적 책무, 존재의 이유와 정당성, 특화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선택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NAPI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특히 아날로그형 정책정보의 자체 보존·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지원하여 실상을 파악한 후 기증요청을 위한 논거를 개발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량기증을 요청할 때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다수가 위탁관리를 선호하는 입장을 고려하여 위탁보존하면서 정책정보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선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증을 통한 정책정보 수집은 NAPI 회원기관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기관·단체나 학계로 외연을 확장하는 거시적, 전략적 접근도 중요하다.

####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책정보 생산자인 동시에 수요자인 NAPI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정책자료 대량기증 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NAPI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44.4%)이 불만족(3.7%) 보다 훨씬 높았고, NAPI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은 희귀 정책자료의 발굴과 디지털화 및 공동활용, 회원기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디지털 서고 구축, 국외 학술 전자책 서비스의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회원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은 필요함(51.9%)이 불필요함(6.1%) 보다 훨씬 높았고, 국립세종도서관과의 협력 필요성은 높음(53.1%)이 낮음(13.6%)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둘째, 회원기관 이용자의 정책정보서비스 요구도는 없음(50.6%)이 많음(13.6%) 보다 훨씬 높았는데, 정책행위가 많지 않거나 이용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이용가능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정책정보의 유형별 평균 중요도(3.28)와 이용도(3.08)는 중위수(3)보다 높았고, 그 순위는 Web DB, 연구보고서, 학술(연구)논문, 일반도서, 통계자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회원기관이 정책정보를 대량 기증하려는 명분과 현실적 이유는 수장공간 부족, 수집 정책 변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보존·제공이 더 바람직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립세종도서관에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21.0%에 불과하였고 기증시기는 2018-2020년과 2024년 이후, 2021-2023년 순으로 나타났다. 대량기증(관리위탁) 의사가 있는 경우, 정책정보 유형은 자체 발간 각종 보고서, 연속간행물, 자체 발간 일반도서, 자체 발간 연속간행물, 정 부간행물, 학위논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유권 이전문제는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관리 위탁을 희망하는 기관이 76.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넷째, 정책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국립세종도서관의 과제는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으로서 정체성 확립, 정책정보서비스 기능의 확대 및 신속화, NAPI 회원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외국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수집력을 강화하여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NAPI 회원기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먼저 국내 정책정보

중에서 공간자료의 납본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자료의 총량, 즉 모집단을 추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NAPI 회원기관이 인식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주요 과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외국 정책정보 수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 수집대상 국가와 언어 등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국립세종도서관의 외국 정책정보 수집전략' 등과 같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생산·유통되는 정책정보 중에서 특히 회색문헌의 수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사이트를 구축하여 포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되, 디지털 장서개발 차원에서 수집·보존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은 디지털 정보유통과 정책정보 수요자의 디지털 버전 선호도, 인쇄형 정책정보의 보존공간 및 유지비용 문제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 기증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원기관이 수장하고 있는 정책정보를 수증방식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특히 아날로그형 정책정보의 자체 보존·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기증요청을 위한 논거를 개발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대량기증을 요청할 때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다수가 위탁관리를 선호하는 입장을 고려하여 위탁보존하면서 정책정보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증대상을 NAPI 회원기관에서 국내외 기관·단체나 학계로 확대하는 거시적 시각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1] 광승진, 노영희, 김동석. 2015.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수요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2): 75-109.
- [2] 광승진 외. 2011.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립도서관 운영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311-330.
- [3] 국립세종도서관. 2017.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 세종: 국립세종도서관.
- [4] 국립중앙도서관. 2011. 『행복도시 국립도서관 기본운영계획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5] 국립중앙도서관. 2015. 『도서관실무용어해설집』.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6] 노영희 외. 2015.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수요자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1): 83-113.
- [7] 노영희, 심재윤. 2014. 정책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정책연구자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137-168.
- [8] 윤희윤, 오선경, 성정희. 2016.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이해집단의 인식조사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19-42.
- [9] 이민석. 2015. 『도서관 온라인 정책정보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10] Georgiou, A. and Makri, S. 2015. "How Local Government Policy Workers Use Information: An Interview Study and Design Recommendations." *Andrew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5: 472-489.

###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ak, Seung-Jin, Noh, Young-Hee and Kim, Dong-Seok. 2015. "A Study on Need Analysis for User-Customized Policy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2): 75-109.
- [2] Kwak, Seung-Jin et al. 2011. "A Study on the Management Strategy of a National Library for the Policy Information Service: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National Sejong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311-330.
- [3]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Sejong: The Library.
- [4]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1. *A Study on the Basic Operational Pla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Seoul: The Library.

- [5]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5. *A Glossary of Library Practical Term*. Seoul: The Library.
- [6] Noh, Young-Hee et al. 2015. "A Study on the Demand for and Creation of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1): 83-113.
- [7] Noh, Young-Hee and Shim, Jae-Yoon. 2014. "A Study on Policy Researchers' Requirements for Policy Information Providing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3): 137-168.
- [8] Yoon, Hee-Yoon, Oh, Seon-Kyung and Seong, Jeong-Hee. 2016. "Analysis of Stakeholders' Perception abou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19-42.
- [9] Lee, Min-Seok. 2015. *Study on Evaluating Online Policy Information Service of Libraries*. M.A. thesis. Soong-Sil University.